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3. 31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 규제당국, 바이낸스·자오창핑 최고경영자 提訴
 - 3.28 언론은 미국 선물거래위원회(CFTC)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'바이낸스'와 '자오창핑'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
 - ※ CFTC는 同人들이 자금세탁·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법률을 포함한 상품거래법 8개 핵심 조항을 위반했다고 부언

유럽

- 英, 북아일랜드 테러 경보 1년 만에 '심각' 단계로 상향
 - 3.28 英 국내정보국은 다음달 聖 금요일 평화협정 25주년을 앞두고 북아일랜드 지역 테러 경보를 '심각*' 단계로 상향, 지난달 아일랜드 공화군의 警 겨냥 총기테러 등 테러활동 증가에 따른 조치로 분석
 - * 英 테러 경보 5단계 중 두번째로 높은 단계로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

중 동

- 이란, 미국의 시리아내 군사기지 폭격에 즉각 보복 선언
 - 3.25 이란은 지난 23일 시리아 북부 미군기지 피습(사망1, 부상6) 다음날 이루어진 미국의 시리아내 이란 군사기지 폭격(사망 19)을 비난하며, 시리아내 주둔 중인 이란 군사기지 공격시 즉각 보복하겠다고 발표
 - ※ 미군기지 공격에 이란이 관여했다는 주장은 미국이 시리아 영토 일부를 불법 점령하기 위한 것이며, 오히려 이란은 미군기지를 불법으로 판단한다고 강조

- ISIS, 시리아에서 송로버섯 채집꾼 등 40명 납치 후 15명 살해
 - 3.25 언론은 3.23 시리아 하마주 마을에서 고가의 식재료인 송로버섯 (트리플) 채집꾼 등 40명이 ISIS에 의해 납치된 후 15명이 살해되는 등 채집꾼들의 목값을 노리는 ISIS의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
 - ※ 지난달에도 ISIS가 시리아 팔미라에서 송로버섯을 채취하던 민간인 공격(사망 53)

아 · 태평양

- 행안부, 국가중요시설 '불법드론 대응' 위해 인천공항과 협력 강화
 - 3.27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인천공항공사는 향후 정부청사 드론방호체계 구축에 인천공항의 '드론방어시스템'을 접목하는 등 국가중요시설의 불법드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
 - ※ 방호·보안, 시설관리, 교육·훈련정보 등에 대해서도 지속 교류·협력할 계획
- 뉴질랜드, 정보기관장 회의 간 '국내테러 위협' 증가 경고
 - 3.27 뉴질랜드 「힙킨스」 총리는 종교적·인종적 극단주의 확산으로 국내테러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며, 최근 사전에 적발된 자국민 연루 대규모 테러 공격 시도 3건을 공개 설명하는 등 자국내 증가하는 국내테러 위협 경고
 - ※ 한편, 同회의에서 안보정보청장은 “온라인상 종교·인종 커뮤니티를 통해 극단주의 이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”며 사이버 대테러활동 강조

아프리카

- 나이지리아, '국가대테러센터(NCTC)' 출범
 - 3.25 언론은 나이지리아 「무함마드 부가리」 대통령이 국가대테러센터 (NCTC)*를 출범시켰으며, 이를 통해 대테러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, 테러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
 - * 보안기관, 군, 정보기관의 활동을 조정·통합하는 플랫폼

파키스탄 탈레반(TTP), 경찰학교 테러 사건

- '09.3.30 07:30경 무장괴한들이 파키스탄 펀자브州 라호르市 외곽에 소재한 '마나완 경찰학교'를 노리고 자살폭탄·총기테러를 자행, 최소 26명의 경찰관이 사망하였고 훈련생 등 90여명이 부상
 - ※ 사건 발생 당시 학교 내에는 약 850명의 훈련생과 교관 등이 있었으며, 총격 발생 직후 대부분 대피한 것으로 확인
- 테러범은 경찰관 등을 인질로 잡아 8시간 이상 농성하였으나, 파키스탄 특수부대와 보안軍의 진압작전으로 테러범 4명 사살·3명 생포
 - 현지 경찰 당국과 목격자들은 "경찰관으로 위장한 무장괴한들이 학교 뒤쪽 담을 넘어 침입하였으며, 학교를 포위하듯 사방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하였다"고 진술
- 사건 직후 파키스탄 탈레반(TTP) 지도자 「바이톨라 메수드」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同 테러의 배후임을 밝히며 "같은 유형의 공격이 계속될 것"이라고 경고

< 파키스탄 탈레반 (TTP) >

- (결성) '07. 12 알카에다가 '파키스탄의 FATA(부족자치州) 지역 내 저항 및 무장투쟁 강화'를 위해 13개 무장단체들을 연합하여 결성한 극단주의 테러단체('11.7 UN 지정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북서부 부족지역(FATA) 및 아프간 접경지역(쿠나르 지역 등)
- (활동수법) 부족지역내 게릴라戰 및 페샤와르 등 주요도시 폭탄테러 등을 자행, 중앙 집권적인 아프간 탈레반과 달리 각 부족별 조직이 자율적으로 점조직 활동
- (주요테러) △'07.12 라왈핀디에서 前파키스탄 총리 암살 △'11.5 페샤와르 국경수비대 대상 자폭테러 △'13.9 페샤와르에서 교회 대상 자폭테러 △'14.6 카라치市 진나국제공항 동시다발 공격 등